



무등기야구 열전 돌입
광주일보사가 고교야구 중흥을 위해 창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24개 고교가 참가한 가운데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1일 열린 광주일고와 군산상고의 개막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 투기과열지구 해제 '차일피일' 광주 경제 침체 직격탄

건설경기 여파 불황 장기화

광주와 부산 등 지방 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정부의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건설 경기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가뜩이나 건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분양 급증 및 건설사 부도 등 건설경기가 날로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수도권 위주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비수도권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은 평균 0.14% 떨어졌다. 이 가운데 광주는 올해 소비자 물가 급등 속에서도 아파트값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1만가구에 달하는 등 건설·부동산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광주는 특히 최근 입주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불꺼진 아파트'가 속출

하는가 하면 매매가가 분양가를 밑도는 이른바 '광통 아파트'까지 등장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31% 오르면서 지난해 말 '집값 광풍'을 지켜본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과는 관계없는 지방 도시에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집값은 0.6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수도권은 평균 19.16% 급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무색케 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정부의 획일

적 규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 미분양물량 급증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건에 해당됨에도 여전히 수도권과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5월 또는 6월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면서도 아직껏 심의위원회 조차 갖지 않는 등 지방에 대한 무관심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명박 연루설' BBK 김정준씨 光銀창투 인수 384억원 횡령

美 도주후 상장 폐지... 투자자 손실 막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연루설로 논란이 일고 있는 BBK의 대표사인 김정준씨가 광주은행의 자회사인 광은창투를 인수한 후 주가 조작 등을 통해 38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코스타드 상장사인 광은창투는 인수 당시 당기 순이익이 5억원을 넘을 정도로 우량회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후 미국으로 도주해 광은창투가 상장 폐지됐으며 그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민 등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11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인 BBK의 대표인 김씨는 2001년 2월 광은창투와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광은창투의 자회사인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했다는 것. 뉴비전벤처캐피탈은 광은창투가 이들을 바꾼 회사로 광은은행이 지분의 34.4%를 보유하고 있었

다. 광은창투는 1991년 4월 광주는행을 최대주주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중심이 돼 192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창업투자 전문회사이다. 김씨는 1999년 4월 BBK를 설립해 이명박 전 시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LK-뱅크'의 자산운용 자회사로 운영하다 2001년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BK가 등록특소처분을 받아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를 위해 2001년 3월과 5월 광은은행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뉴비전벤처캐피탈 주식 76만 8천주(광은은행 전체 지분의 58.2%)를 장외에서 매입한 후 회사 이름을 읍서널벤처스 코리아로 바꾸고 최대주주가 됐다. 양측의 계약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인수에 나선 김씨측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로부터 자회사의 조기매각 압박을 받던 광은은행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뤄졌다. 김씨는 그러나 회사 인수 후 다섯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2001년 11월 유령벤처회사에 180억원을 투자하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회사돈 384억원을 횡령해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검거돼 현재 미국내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김씨의 전횡으로 광은창투가 모태인 읍서널벤처스 코리아는 결국 1년 5개월만인 2002년 7월 코스타드에서 퇴출됐다. 이 회사의 상장 폐지 당시 주가는 300원 안팎으로 소액 투자자는 5천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은은행 관계자는 "광은창투는 인수되기 직전년도 결산만 보더라도 당기 순이익이 5억원을 넘을 정도로 우량회사였는데 BBK의 우회상장 청구로 이용된 것이 안타깝다"며 "지역 상장사였다면 점에서 상장 폐지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컸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명박·박근혜 경선후보 공식 등록

한나라, 8월19일 투표... 탈당후 출마 못해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유력 대선주자가 11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70일간의 대열전에 들어갔다. 당 경선관리위는 이날 경선투표는 8월 19일 실시하고, 결과는 20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3·4면> 박 전 대표는 후보 등록 직후 오전 열광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확실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특히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고 새로운 선진 한국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선언 직후 첫 일정으로 전북 전주를 찾았다. 측근들은 "민주화 세력과의 화해를 위한 상징적 발걸음"이라고 했다. 이 전 시장도 후보 등록 후 가진 기

지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무능한 이념 세력을 유능한 정책세력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나라당뿐 아니라 뉴라이프와 중도보수시민세력,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가치 '대한민국 선진화 추진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노무현 대통령의 잇단 비판과 관련, "민주주의와 야당에 대한 노 대통령의 도발적 행위는 저열한 정치적 노림수이며 '결연한 각오로 단결해 현 정권의 정권교체 지지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나라, 오늘 노대통령 재고발

한나라당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를 문 제삼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노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과

6·10항쟁 기념식 발언의 경우 대상이 한정되지 않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띤 만큼 재고발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12일 당 법률지원단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재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습스

넌센스 CRACKER
'넌센스' 티켓 발매중!!
2007.6.30-7.1/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우양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중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6051 ▶ T.(061)360-5000

국제약품 기원라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캄보디아 제 11회 소비자 제품 품질 평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입술에 비타민을 주자
이름다운 입술
SENSTICK